

# 사설

## 선거를 하는 이유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과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가 공고된 이래 지금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승단의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크다. 이번 선거에 일하는 사람들은 개혁 2기의 종단 살림을 맡을 중앙총회의원과 총무원장을 뽑는 중대사일 뿐 아니라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는 불교가 중흥의 큰 길로 향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분기점에 선 막중한 대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체에 공명상태하고 성숙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불교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흥의 새로운 기점이 되도록 선거 당사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의 양태는 마치 정치판의 못된 양상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며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승단의 선거는 세속과는 마땅히 달라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하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정신적인, 최고의 성숙을 지향하는 승단의 선거모습이 우리들이 항상 격고 있는 세속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불교의 모습이 아니다. 자선단체 입후보자들이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자세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염증을 느끼고 있는 세속의 정치판 선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바르지 못한 무리한 주장들은 결국 또다른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불교계의 이러한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승가의 모든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항상 일치되어야 한다. 오로지

머리와 말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행동은 거리가 멀다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미주알 고주알 다 들춰내어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다. 선거도 수행의 연장선상으로 여기고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종교적 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표가 많고 적다는 산술적인 선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집약된 종교적 의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가깝게는 승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넓게는 모든 불교도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불교도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불교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래를 엮을 꿈을 실어 주어야 한다.

선거를 왜 하는지 근본목적부터 살펴 할 것이다. 선거에서 이겨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는다는 것도 결국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불교정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선거가 세속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꿈을 심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와 다를 바가 없다. 속된 행동은 그래서 반(反)포교적이거나 반불교적인 것이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선의의 경쟁은 물론 선거 결과에 겹쳐서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 모든 조계종의 선거는 전 불자들이 하나되는 의식이란 것을 깊이 새기자. 불자들의 역할을 한 계단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자. 지나친 과열이나 야합, 반목적인 선거행태를 지양하고 출가했던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들의 각성과 선거권자 모두의 바른 선택을 촉구한다.

# 청주 노봉사 훼손방화 경찰-보험사 사건왜곡

### "창건주 불두 감춰다" 망언도... 교계 대응 절실

청주 노봉사 훼손사건과 관련된 청주서부경찰서 이창태형사가 13일 사찰을 찾아 창건주인 노대도행보살에게 불두를 되돌려 주며 "불두를 불나기전 요사체에 감춰다"며 사찰측 고의방화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보험사는 노봉사 훼손방화사건을 사찰측의 고의방화임을 근거로 강조하며 미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회사도 이러한 편견을 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모종의

연계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역불자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9월 9일 주지인 원행스님이 법당뒤에서 불두를 발견해 즉시 신고했으나 담당형사가 휴가중이라며 출동하지 않았고 9월 10일에도 인근과출소에 신고했으나 현장조사를 하지않고 경찰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었다. 9월 12일 교계기자단과의 통화에서 경찰서측은 "불두발견 사실을 아는 바 없다"고 말하며 다 계속추궁하자 "형사계장은 알고 있다"는 공격적인 변명을 했다.



방승작가 불교학술 세미나

조계종포교원은 21~22일 1박2일동안 교향 선운사에서 '제15회 방승작가 불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을 비롯 70여명의 방승작가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초의문화재단 혜성스님의 '다도의 이해'란 주제 발표에 이어 랜다법 시범과 차음식 전시회가 열렸다. 또 구세대비의 불교정신을 작품으로 담아냄으로써 불교문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KSB-TV '용의 눈물'의 작가 이한경(49세)과 KBS라디오 '문화살롱'의 이윤수작가(37)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nia.com)

이후 청주서부경찰서 서장과 보안과장을 비롯한 담당형사들은 노봉사 현장을 방문하여 불두를 회수해 갔다. 노봉사주지 원행스님은 "경찰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초동수사부터 소홀히 진행 시키며 계속해서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담당형사들이 사건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며 "보험회사인 해동화재도 선화원(조계종과 선화원 대립사)의 연계시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기 위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노봉사는 6월 8일 오전 1시30분 원인모를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됐지만 경찰은 방화의혹이 짙다며 수사를 부진하게 진행하고 보험사는 확인이 밝혀지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9월 9일 법당인근 야산에서 대웅전에 있던 불상의 불두가 예리한 톱으로 잘린채 발견돼 훼손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사찰측에서 재수사를 의뢰한바 있다.(본지 178호, 190호 22면 참조)

청주시 김모불자는 "노봉사 훼손사건을 경찰이 축소하고 미온적인 대처하여 최근 또 불연사에 훼손사건이 발생했다"며 "도체체 대통령이 종교관향을 근절하겠다는 발표를 한 국민정 부시대에도 경찰이 이렇게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nia.com)

# 美 종교학회 '한국해불' 안건 채택

### '종교학합' 권고문 준비

미국종교학회가 11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해불사건을 안건으로 채택, 논의한다.

미국종교학회 회원인 존 버스통교수(보스톤대 신학부, 불교-기독교학회 부회장)는 19일 세종대 테데스코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리는 올랜도에서 11월 열리는 미국종교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교에 공격을 가한 일'을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버스통교수는 또 "자비심으로 흥분하지 않다면, 행동해야 한다"는 달라이라마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같은(해불을 지칭) 비극적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테데스코교수는 96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불교-기독교 학회 국제회의에 참가, 당시 화계사 불원정사 삼성암 방화사건을 보고해 성명서를 채택케 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미국종교학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타종교인에 의한 해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종교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화합을 촉구하는 권고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종교학회에는 미국내의 종교학자를 비롯 각국의 종교학자 및 종교인 등 8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세계적인 종교학회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 육·해·공 군종장교 150여명 참석 군 종교화합 세미나 열린다

### 11월 17·18일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화합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군종세미나가 국방부군종실(실장 박성대신부) 주최로 11월 17~1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정례적인 군종장교 보수교육을 세미나로 변경해 열리는 것으로 육·해·공군의 영관급 군종장교 1백50여명이 참석, 주제발표와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마치고 종교화합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발표 주제 및 발표자는 '21세기 군종병과의 나아갈 길'(박성대) '종교간 대화와 군종의 역할'(윤이훈 서울대교수) '종교화합을 위한 불교의 제안'(정병조 동국대부총장) '군내 종교간 공존을 위한 군종의 과제'(정병조 천주교 군종교구장)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전호진 고신대교수) 등이다. 국방부군종실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종교간 갈등으로 군내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증대되어 군종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 연백문도회 발족

### 문장-서용스님

### 회장-밀운스님

조선 후기 연달·백파스님의 계맥을 잇는 연백문도회가 19일 문양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선운사 대총사 백양사 봉선사 조계사 도선사에서 참석한 1백30여명의 문인들이 함께한 이날 총회에서는 문장에 서용스님(백양사 방장), 회장에 밀운스님(봉선사 주지)을 추대했다. 또 해산(선운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 보선(대총사 주지) 등광

(도선사 주지) 현근(조계사 주지)스님을 부회장으로 구성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전국의 국립공원내에 이미 형성된 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개발이 허용되는 등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7~20일 전국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가진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 전면적용 재조정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연태 기자

# 영적문제 해답주는 종교

## 불교-천주교-개신교 순

### 갤럽, 비종교인 1천여명 조사

국민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비종교인들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3대 종교 가운데 '개인 영적문제에 해답'을 주는 측면에서 불교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신교단체인 '한국교회 미래 준비하는 모임'의 후원으로 한국갤럽이 6대도시 비종교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종교별 이미지평가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개인의 영적문제에 해답을 가장 잘 주는 종교' 부문에서는 불교(20.5%)가 천주교(19.0%), 개신교(18.0%)보다 조금 앞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부문에서 개신교(53.2%), 천주교(40.3%)보다 낮은 37.1%로 드러났다. 어느 종교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배타성을 갖는가'를 묻는 질문에 불교(14.6%)가 가장 배타성이 적은 종교라고 답했으며, 배타성이 가장 많은 종교로 개신교(33.2%)를 지목했다. '종교지도자 자질'은 천주교(40.8%), 불교(26.7%), 개신교(22.8%)순으로 나타났다.

향년 한국갤럽의 '각 종교별 인구비 및 지난 10년간 증가율' 조사에서 비종교인 비율은 47.2%로 나타났으며, 각종교인 비율은 불교(23.5%), 개신교(20.7%), 천주교(7.5%)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신자증가율은 불교가 2.6%로 개신교(1.5%), 천주교(0.5%)에 비해 약진했으며,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자 기자(eilee@buddhania.com)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 현대만평



멋진 합작품을...

# 성명서

## - 해종행위자에 대한 사면·복권 움직임에 경고한다 -

최근 제29대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이미 해종행위로 징계를 받은 몇몇 전직승려들과 일부 후보진영에서 함께 소위 '사면·복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원로스님들의 서명을 받으려 다닌다는 얘기가 돌리고 있다. 이는 94년 종단개혁의 의의와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개혁에 동참했던 사부대중의 희생과 헌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요, 모처럼 이룬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기초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해종행위다. 송월주 총무원장후보 추대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구 종권의 핵심부인 서의현, 황진경 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그 잔류 집단과 눈앞의 이익 앞에 매종매불하는 일부 후보진영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선거시국의 다소 혼란한 상황을 틈타 벌어지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사부대중 앞에 밝힌다.

### 중단개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해종분자들에게 고한다!

소위 '대한불교조계종 중도회'라는 유령단체의 명의로 배포됐던 석명서에서 밝힌 바대로 그들의 주장은 94년 중단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현 종단체제를 불법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는 현 종단체제를 지탱하고 지지하는 대다수 중도들과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주장으로, 부처님법에 근거한 명분도 기본적인 역사적 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수 해종분자들의 자족적인 배려에 다름 아니다. 현재 종단은 화합과 안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화합과 안정은 칼처럼 시퍼렇게 날이 서있는 철저한 계율의식과 종단의 엄한 규율의 바탕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4년 전에 광패를 동원해 사부대중의 순수한 의지를 폭도로 몰아 붙였던 저들의 만행을 벌써 망각한 중도는 종단 안에 한 사람도 없다. 소수의 해종분자들이 바라는 바대로 그들을 구제하는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종단의 종통과 규율은 일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중도들은 누구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물지각하고 염치없는 태도로 종단의 개혁을 부정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것은 선거시국을 틈타 종단에 혼란을 부추기는 해종분자 특유의 권모술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해종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더 이상 중도들을 현혹하거나 물질적인 매수를 통해 종단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돌아가 스스로의 반성을 회두삼아 근신해야 한다. 그 길만이 사면과 복권을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도들로부터 그나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슴깊이 깨닫기를 진심으로 통고하는 바다.

### 일부 후보진영은 해종분자들과의 물밑거래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중책선거에 나서라!

종단개혁을 이룬 지 채 5년도 지나기 전에 자신들의 사면과 복권을 주장하는 해종분자들의 행위보다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과의 투명하지 못한 물밑거래를 통해 손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총무원장 선거를 의도적으로 과열시키고 투표를 못할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후보진영의 부도덕한 태도다.

해종분자들은 부패한 국가권력과 결탁하고 종단의 일인지배하의 사조직처럼 운영했던 사실은 철저히 감추면서 중도들에게는 용서와 온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말의 반성의 빛도 내비치지 않고 아직도 안하무인의 주장을 펴고 있는 그들을 상대로 온정과 용서를 베푸는 것은 온정과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합과 해종행위일 뿐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후보진영에서 원로회의 의원스님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으려는 해종분자들의 행위에 함께 동행하거나, 이미 4월부터 진행된 사면·복권 움직임에 가세해 신문에 투고했던 사실은 아합 혹은 역사적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으로 21세기 종단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제29대 총무원장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부 후보진영에서는 해종행위와 더불어 이러한 사면·복권 움직임에 편승한 뒷거래를 통한 대표행위를 중시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중책선거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해종분자들의 사면과 복권 움직임에 계속 동조하거나 행보를 함께 할 경우에는 이번 제29대 총무원장선거의 의미는 정통 개혁세력에 의한 해종분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귀착될 것임을 경고한다.

불기 2542년 10월 일

# 宋月珠 總務院長候補推戴委員會